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祝 “제59회 본당의 날” (오늘)

- 기념 미사
 - 오늘 교중 미사(10:30)
- 행사
 - 일시 및 장소 : 교중 미사 후 본당 주차장
 - 내 용 : 구역 대항 윷놀이, 행운권 추첨
국수 잔치 및 먹거리 등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9월 30일 현재 ₩15,380,000 납부되었습니다.

알 림

- 다음 주(10월 23일)는 전교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보스코 홀(장례식장)은 10월 17일부터 재개합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회 의

- 사목협의회
 - 일 시 : 10월 27일(목), 19시 40분
 - 장 소 : 강 당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3Cu-사랑의 모후	10월 23일(일), 13시	강 당

젓갈 판매

- 접 수 : 10월 23일 당일만 수량 및 현금 접수 가능
- 접수 장소 : 본당 앞마당
- 젓갈 수량 : 10월 30일 당일만 본당 앞마당
- 연락처 : 010-8651-4375
- 가 격 : ① 신안새우젓-육젓 2kg→6만원
-추젓2kg→2만3천원
② 추자도멸치액젓 5kg→2만3천원
③ 까나리액젓 5kg→2만3천원

구삼 청년 식사 잔치 초대

- 일 시 : 10월 30일(일), 교중 미사 후
- 장 소 : 구로3동 성당 강당, 식당
- 티 켓 : 1장 5,000원
- 메 뉴 : 설렁탕, 수육, 주류, 컵케이크, 안주 등
- 문 의 : 정상범 야고보 010-7275-4253

위령의 날 (11/02) 미사 안내

미사 시간	06:30, 10:00, 19:00
-------	---------------------

- 위령의 날에 봉헌되신 모든 연령들은 당일 모든 미사마다 봉헌됩니다.

다음 주일(10/2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3구역	청 소	1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10월 5일 ~ 10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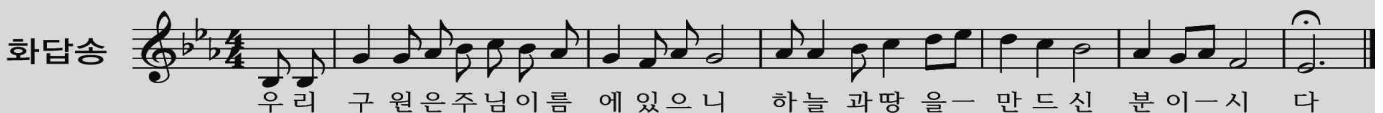
- 교 무 금 6,093,000원
- 주일헌금 4,282,610원
- 감사헌금 강인석50만원 강백구50만원 김준성10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0/16	최경희	심재순 장희석	안상록 손정주
10/23	이영민	오성환 김영균	최웅조 정연희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0/16	이화봉	최영만 김영배	오광운 박형순	
10/23	이운영	이화봉 최영만	장인홍 김인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21. 이러한 규약은 공동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양보할 가능성을 받아들일 것도 요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진리를 소유할 수 없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럴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인하면서 그를 해치려 들 것입니다. 그릇된 관용을 추구하는 자세는, 자기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고 다른 이들도 그들 원칙에 충실하려고 시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이들이 지니는 현실적인 대화의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참다운 인정은, 오로지 사랑만이 가능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의 동기와 관심사 가운데에서 진정성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의 회복

222. 소비 개인주의는 많은 횡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자신의 평온한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이들을 성가신 존재로 대하고 공격적인 자세가 드세집니다. 이는 ‘각자도생’이라는 생각이 부각될 때, 위기나 재해 상황이나 시련의 시기에 더욱 고조되고 팽배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친절을 베푸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 가운데에 빛나는 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3. 바오로 성인은 그리스어 ‘크레스토테스’로 성령의 한 열매를 언급하였습니다. 크레스토테스는 가혹하고 무례하며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지하고 위로하는 너그럽고 상냥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질을 지닌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은 특히 다른 이들이 여러 문제와 시급한 필요와 고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삶을 더 감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크레스토테스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친절한 응대,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 다른 이들의 무게를 덜어 주려는 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격려의 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말은 위로와 위안이 되며 힘과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이는 “비하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멸시하는 말이 아닙니다.